

# 고대 그리스에서 실정적 사유의 형성\*

김 남 두\*\*

## 1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서구 근세의 자연이해와 연관되어 그 사상적 연원이 이야기되며, 근세를 특징짓는 이 자연이해는 흔히 갈릴레이와 뉴턴적 자연 이해로 대표된다.<sup>1)</sup> 그러나 서구의 이같은 중심적 자연 이해가 근세에 들어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근세는 흔히 역사 구분의 한 시기로 우리에게 낯익은 개념이요 이 시기는 그 이전 시기와의 차이 때문에 구분되겠지만 이같은 구분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세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은 고대와 중세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 우리의 자연 이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근세적 자연이해라 불리는 특징적 면모들은 고대와 중세의 긴 시간을 통해 형성을 과정을 거친다. 근세적 자연이해의 연원을 밝히면서 흔히 기독교의 성서가 보여주는 자연에 대한 태도가 이야기된다. 신이 자연을 인간의 번영을 위해 이용하도록 창조했다는 창세기의 기록이 인간을 자연의 주인이요 이용자로 보는 근대 데카르트적 자연이해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중세사가 린 화이트의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자주 인용되

---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8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연구과제(3년 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KRF-1998-005-B00103).

\*\* 서울대 철학과 교수

1) Sambursky, S. The Physical World of Greeks 1956 London 1쪽 참조.

는 글이 이런 예를 보여 준다. 그는 서양 생태위기의 중세적 기원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기술 및 과학운동은 중세에 시작해서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획득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세의 기본적인 선제와 발전과정을 검토해 보지 않고서는 기술 및 과학의 본성과 그것이 현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다.<sup>2)</sup>

인용문에서 저자는 1) 과학 기술의 본성과 생태문제의 밀접한 연관을 전제하고 있으며 2) 이런 과학기술의 본성이 중세에 시작되었다는 것 3) 그러므로 과학기술의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의 기본전제와 발전과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중세의 주요 기술 발달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하며 아울러 중세적 기본 전제로 구약의 창조신화가 지니는 생태학적 함축을 논의하고 있다. 신이 자연의 피조물들을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며, 인간이 이 피조물들을 지배하도록 했다는 구약의 언명이 생태문제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자주 논의되어 온 주제이며 그 타당성 여부를 여기서 자세히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성서적 자연이해가 “특히 그 서양적 형태에 있어서 지구상에 나타난 종교 가운데 가장 인간중심적”<sup>3)</sup>이며, 이 자연이해가 오늘의 생태학적 문제에 연관되어 있다는 입장은 이렇듯 없이 받아들일만한 것이다.

지구분화의 또 다른 원천을 이루는 그리스 사상은 오늘의 생태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생태문제의 광범위한 지평을 일단 접어 두고 근대과학과 오늘의 생태문제의 연관을 확인해 둔다면, 우

2) Lynn T.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CLV 1967, 인용은 이 논문의 한국어 번역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 이 유선 역, 『과학사상』 창간호 1992, 288쪽에서.

3) 같은 책, 290쪽.

리는 물음을 다음과 같이 바꿔 물을 수 있다. 서구 문화 형성의 초창기라 한 회람 자연철학자들의 자연이해 가운데 이미 근대적 자연이해의 맹아가 될 사상의 실마리가 내재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답도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시도해 볼만한 것이며 이미 부분적이나마 여러 방식으로 시도된 바 있다. 이 글과 이어지는 두 편의 글에서 시도되는 작업도 이런 성격의 작업이다. '지구적 자연이해와 생내분제의 사상사적 연원'을 주제로 한 세 편의 논문은 분자 그대로 지구 사상의 맹아기에 해당되는 시기를 다룬다. 워자론의 천학이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천학적 입상은 각기 상이한 맥락에서 근대과학과의 연관이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서양철학과 학문의 출발로 이야기되는 이오니아 학파나 엘레아 학파 등에 관해서 일부 이런 작업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질 만큼 활발히 이루어지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대 그리스에서 실정적 사유의 형성', '아나시만드로스와 서양적 자연이해의 맹아'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의 자연이해와 로고스의 실정성'이라는 제목 아래 이 세 편의 글에서는 서양 철학과 학문 일반이 생성되는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근대적 자연 접근방식의 맹아가 발견될 수 있으며 근대과학과의 연관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일련의 글들의 첫 글에 해당하는 이 논문은 이어지는 글들의 서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sup>4)</sup> 제목이 지시하는 대로 이 글은 고대 그리스 학문형성기의 초창기에 실정적 사유가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먼저 실정성(positivity)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억함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 실정성의 이념이 고대 그리스 학문 형성의 초창기에 어떻게 함께 형성되는지를 살펴본다. 서양 학문의 초창기에 실정성 이념의 구체적 형성을 살펴보는 일은 이어지는 두 글의 과

4) 원래 이 글이 찍어진 순서는 여기에 배열되는 순서와는 역순으로 찍여졌다. 파르메니데스에 관한 글이 제일 먼저, 다음으로 아나시만드로스에 관한 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실정적 사유의 형성에 관한 글이 찍여졌다. 여기서는 내용을 약간 손전하여 시대 순으로 실었다.

제가 되겠다. 이 글에서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로 대표되는 신화시대로부터 초기 자연철학자들의 작업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자연접근방식의 변화를 개관하는 서론적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작업은 프랑스의 저명한 고전학자 J. P. Vernant의 저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의 논의가 제시되고 이어서 실정성에 관한 그의 입장이 검토된다. 메르낭의 글이 위문의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큰 줄기에서 그대로 번역되어 제시되고 그에 관한 논의가 뒤따른다.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에 관한 메르낭의 통찰이 큰 훼손 없이 제시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이며, 그의 입장에서 도출될 수 있는 ‘실정성’의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글이 목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작업은 흔히 사용되는 실정성 개념이 서양학문사의 맥락에서 좀더 포괄적이고 생산적인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 이미 완성된 생각이기보다 탐색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일련의 작업들은 서양학문의 맥락에서 발견되는 ‘서양적’ 자연관의 기본적 특징을 ‘실정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탐색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이 개념의 확대된 형상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 2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글을 포함한 세 편의 글에서 실정성 개념이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실정성이라는 개념을 초기 자연철학자들이 사용한 개념이 아닌 만큼 이 글의 작업을 개념사적 작업으로 이름 붙이기는 어렵다. 개념사적 작업이란 특정 개념의 형성과 그 변화과정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저자의 저술과 문헌에서 추적 검토하는 작업이다. ‘실정성’이라는 개념이 초기 자연철학자들에게서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 시기에 관해 이 개념의 형성사를 추적하는 일은 성격 상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러나 개념사가 특정 개념의 형성과 진

개를 추적하는 일이며, 이런 작업은 당연히 그 개념이 성립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의 관점에서 이 개념이 성립하지 않은 지역이나 시대 그리고 철학자의 사상을 검토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예컨대 ‘공간’이라는 말이 서양어의 space, espace, Raum의 번역어라고 하더라도 천지, 우주 등 이와 유사한 개념어들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공간에 관한 사유의 진전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겠기 때문이다.

실정성이 고대 그리스의 저술가들이 사용하지 않은 개념임에도 이 개념의 관점에서 기원전 5세기 전후의 사상과 문헌을 검토하는 것은 이 개념을 통해 서양문화의 핵심적 측면이 드러날 수 있으며 우리가 논의하는 근대과학과의 연관을 늘어 내는 데에도 열쇠개념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실정성이라는 개념이 근대에 이르러 미로소 개념화되기는 하지만 실정성이 확립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이미 서양문화의 초창기부터 시작되고 진행되어 왔으며, 이 점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자연이해라는 관점에서도 서양적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제시되는 일련의 글들의 기본 입장이다.

특히 이 근대과학과 관련하여 이 실정성 개념의 중요성은 특별한 것이다. 실정성이라는 말은 서양어 positivity나 Positivitaet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통상적 용례에 따르면 실증성이라는 번역도 가능하다. 근대과학을 흔히 실증과학이라고 부르거나 과학이 실증적이라는 것은 경험적 검증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적 검증을 거친 것이라는 사실은 그것의 타당성 요구와 관련하여 특별한 위치를 지니게 된다. 즉 그것이 타당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정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필자가 핵심적으로 파악하는 의미게기가 바로 ‘테스트를 거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구속력이 있는’이라는 뜻이다. 서양학문과 과학이 지난 2500년 이래로 추구해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듯한 것, 그래서 이런 수도 저런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 그런 것,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테스트를 거친다는 것은 그것이 외적이고, 공적인 것으

로 제시될 때 기능하며, 자신의 참됨에 대한 타당성의 요구를 할 때 그런지 아닌지를 테스트 받게 된다.

필자가 실정성이라는 개념이 고대 회람 학문 발전사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논이나 소피스트의 논변, 소크라테스의 논박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술들이 모두 공적인 논의에서 테스트되어 그 당부가 검증되는 종류의 만들이나, 근대 과학의 테스트와 다른 점은 고대 논변들이 상호간의 만을 통해 테스트되는 데 반해 근대과학의 명제들은 경험을 통해 테스트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을 통해 테스트되는 것들의 경우 성립하는 실정성은 로고스의 실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의 논리, 논변에 의해 성립한다. 여기서 대화 쌍방 중 어느 한편이 느끼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이란 일종의 논리적 필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서양의 학문사는 그리스 시대에 성립하는 로고스적 실정성과 기독교 사상의 영향 아래 성립하는 근대의 faktum의 실정성<sup>5)</sup> 또는 경험적 실정성이라는 두 단계를 지나며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파르메니데스나 그 이전 시대의 개념이 아닌 데도 이 시기에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두 단계를 거치며 서양학문이 실정성의 추구를 통해 형성시켜 온 것은 테스트를 거친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서양과학이 지역을 불문하고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여기서 찾아진 수 있다. 그것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두 요인, 즉 서술의 수리구조와 경험적으로 테스트된이란 바로 저 두 단계의 실정성을 구성요소로 한다는 만이 되겠다. 오늘의 생태위기가 서양과학과 밀접히 연결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설이라면 이 연결에서 실정성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좀더 따져 볼만한 지성사의 한 장이 아닐 수 없다.

5) 많이 알려진 콩트의 저술에서 뿐 아니라 에킨데 비코 같은 사람의 저술에서도 이 개념의 씨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인데 이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한다.

이 말의 잉이에 해당하는 positivity나 기나 현대 유럽이에서 보듯이 말은 “놓다”, “세우다”라는 뜻의 라틴어 pono동사의 완료분사 positum과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positive라는 말은 문법학, 수리학, 신학, 법학 등에서 주로 쓰였고, 철학에서는 positivism이라는 개념이 콩트에서 실증천학과 현대 논리실증주의에서 중심개념으로 등장한다. 헤겔과 쉐링, 쾰러의 종교천학 저술에서 이 개념이 종교의 내면성과 자율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현대 법천학 논의에서도 법적 권위와 강제력의 원천 문제에 관해 자연법 사상과 대립되는 입장으로 법실증주의가 강력한 입장으로 제기되어 왔다.<sup>6)</sup>

앞서 이야기했듯이 실정성이라는 개념은 서양 학문과 문화전통에서 기원 후 2세기부터 문법학과 수사학의 전통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8세기 이후 종교 및 법의 실정성 논의 그리고 실증주의 철학의 대두와 함께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부각된다. 이 여러 상이한 논의 전통은 체계적인 연관없이 진행되며 그런 만큼 실정성이라는 개념이 서양 학문사와 사상사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냐에 관해서는 아직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정성이라는 개념이 철학적으로 의미있게 부각되는 것은 후대에 이르러서이나, 이 개념의 내면적 핵심은 서양문화의 초창기부터 의미 있게 추적될 수 있으며, 서양 사상과 문화를 보는 의미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입장이다. 서양 문화가 이 개념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이 개념이 유독히 서양에만 적용될 개념은 아니지만, 이 개념이 어떤 서양적 특징을 지니고 형상화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작업은 서양 학문과 문화의 의미있는 한 부분을 드러내는 일이며 나아가 그 핵심을 부각시키는 일이라고 까지 할 수 있다.

6) Historisches Woerterbuch der Philosophie, Bd. 8. 1106쪽 이하. 'Positiv, Positivitaet' 항목 참조.

## 3

『희랍인들에서 신화와 사유』라는 저술에서 베르낭은 특히 마지막 제 7부를 ‘신화에서 이성으로’라는 제목 아래 ‘고존기 그리스에서 실정적 사유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sup>7)</sup> 이 논문에서 베르낭은 서양 초기 자연철학에서 실정성의 이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의 논의는 신화시대에서 학문시대로 넘어오는 이른바 Mythos에서 Logos로의 변화과정을 상당히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을 실정성의 개념으로 묶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문헌이다. 초기 그리스 학문사나 철학사를 검토하면서 실정성이라는 개념 아래 그 진전과정을 파악하는 입장이 드문기 때문이다. 이제 아래에 그의 논의를 일단 요약적으로 번역하면서 이 시기 실정적 사유의 형성을 추적하고, 이어서 베르낭이 생각하는 실정성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 3-1.

베르낭은 먼저 이 시기의 성격에 관해 두 개의 상호 대조되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sup>8)</sup> 20세기 전반 영국의 저명한 두 고대철학자 버네트(Burnet)와 콘포드(Cornford)가 두 입장을 대면한다. 전자가 학문과 신화 사이의 단절적 기원을 이야기하며 이 사상사적 맥락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특별한 위치를 강조하는데 대해 후자는 신화와 학문상의 이런 단절적 간해를 부인하고 둘 사이의 밀

7) *Mythe et pensee chez les Grecs* 1965. 여기서는 1983년 RKP의 영어번역을 인용한다. 이 책은 전체 7부로 되어 있으며 15개의 절로 나뉘어 있다. 마지막 제7부에는 ‘고존기 그리스에서 실정적 사유의 형성’이라는 절만이 포함되어 있다.

8) 이하 Vernant의 책, 343-345쪽.



접한 연결을 강조한다.

버네트는 고대 이오니아 철학자들에 의해 이후 과학이 따라가야 할 길이 열렸다고 말한다.<sup>9)</sup> 이 견해에 따르면 이오니아에서 철학의 탄생은 과학적 사유의 시작이며 나아가 사유 자체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밀레투스 학파에서 모코스가 처음으로 신화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은 단지 지식 태도에서의 변화나 정신적 변형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정적인 지식 계시이며 정신의 발견이다.<sup>10)</sup> 따라서 과거에서 합리적 정신의 기원을 찾는 일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역사의 밖에 놓여 있으며, 역사의 기록이란 따라서 정신의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이나 잘못 그리고 오류들에 대한 기록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적 기적'이며, 이 기적에서 미시간적인 이성이 이오니아 철학자들의 사유를 통해 시간 속에 모습을 드러냄을 알게 된다. 모코스의 탄생이란 시간의 근원적 미연속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철학의 도착은 짐 없이 민손으로 도착한 이행자처럼 과거 없이 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낸 도착자의 모습이며, 과거도 선행자도 인접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절대적 시작이다. 버네트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이 철학을 장안해 뒀던 것은 그들의 드문 지적 우월성 때문이며, 사유 능력을 동반한 그들의 관찰 능력에 힘입고 있다.<sup>11)</sup> 그리고 그리스 철학을 통해 이 기적 신적인 우월성이 헬레니즘 문화의 후손인 서구문화에 전달되는 것이다.

서양 이성문화의 기원을 다시 묻고 그것의 위치를 새로이 규정하기 위해 좀더 역사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작업 가운데 1912년 콘포드의 '종교에서 철학으로'의 출간이 기억할만한 사건이 된다. 이 책에서 콘포드는 처음으로 종교적 사유와 합리적 사유 사이의 인접을 시도한다. 그의 말년에 그가 이 문제에 관해 연구했던 결과물이 그의 사후 9년이 지나 '*Principium Sapientiae* - 그리스 철학적 사유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다. 이 책에서 그는 그리스 철학적 사유의 신화적, 제의적 기원을 밝힌다.

버네트에 반해 콘포드는 이오니아의 천문학이 오늘날의 과학과 아

9) J. Burnet, *Early Greek Philosophy* 2nd edn, London 1920, v쪽 참조.

10) B. Snell, *Die Entdeckung des Geistes*, Hamburg 1955 참조.

11) 에킨대 C. Rammoux, 'Les interpretation moderne d'Anaximandre,' *Revue de meta- physique et de morale* 3, 1954, 232-52쪽 참조.

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실험과는 관련이 전혀 없으며 자연에 대한 관찰의 결과도 아니다. 이것은 종교적 믿음을 세속적 언어로 옮겨 놓았을 뿐이며, 이를 좀더 추상적인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다. 우주론적 신화가 철학자들의 언어를 통해 우주론으로 바뀌고, 이렇게 카오스로부터 질서 잡힌 우주가 생성되었는가 라는, 신화의 주제가 되었던 것과 동일한 물음에 대답을 시도했다. 그들이 대답에 사용했던 원소(clement)개념들의 배후에 우리는 신화 속의 신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소들은 여전히 불사의 활동하는 힘이었으며 신적인 것이었다. 호메로스의 세계는 신들의 영향력과 명예에 따라 구획된 것이었다. 세 우스는 하늘을, 하네스는 어둠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그리고 셋이 공동으로 땅을 관장했다.<sup>12)</sup> 이오니아 철학자들의 코스모스는 상이한 세계의 영역들을 구획했으며 상호 균형 잡힌 반대되는 힘들에 의해 한해의 사시와 계절이 바뀌었다.

콘포드는 이 양자의 대미가 단순한 유미가 아니라는 것을 헤시오도스의 신화와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론을 세부적으로 비교하며 보여주 고 있다.<sup>13)</sup> 아낙시만드로스의 사민주의적 체계에서 하나의 결정에 이르는 개념상의 발전은 이미 헤시오도스의 제우스를 찬양하는 종교적인 노래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세계에 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이 상이한 추상 수준을 반영하는 두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헤시오도스의 기원신화와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론을 비교하는 콘포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먼저 어떤 것도 분명하지 않고 드러난 것이 없는 상태가 있다. 헤시오도스의 카오스와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이 이 상태이다. 다음으로 이 원시적 통일 상태로부터 분리의 과정을 통해 온-냉, 건-습의 반대되는 짝들이 등장한다. 이것들은 공간의 네 부분, 즉 불의 하늘과 냉한 대기, 건조한 땅과 습한 바나라는 네 영역으로 분화된다. 헤시오도스나 아낙시만드로스나 원초상태에서 ‘분리’를 통해 이런 분화가 이루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셋째로 반대되는 것들은 서로 매칭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한다. 하나가 융성하여 다른 것을 지배하다가 다시 반대의 것이 융성하여 다른 것을 지배하는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 이런 현상은 계절의 변화나 전체의 운농, 산아있는 것들의 탄생과 죽음 등에서 확인된다.

12) 호메로스, 『일리아스』 15, 189-94.

13) F. M. Conford, *Principium Sapientiae*, Oxford 1952, 159쪽 이하 참조.

## 3-2.

신화와 학문 사이의 단절과 연속을 주장하는 두 입장을 버네트와 콘포드의 경우에서 고이코서 베르낭은 콘포드의 입장에 연속하여 물음을 제기한다. 둘 사이가 콘포드가 주장하듯이 그렇게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무엇이 철학을 이전의 신화와 구분하여 철학이게 하는가? 라는 것이 그의 물음이다. 다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sup>14)</sup>

원시적 단일기체로부터 분리에 의한 반대되는 것들의 생성, 반대되는 것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결합, 변화의 끝없는 순환이라는 이오니아 학파 우주실명의 기본 틀은 신화의 구조와 차이가 없으며 그들의 작업이란 본질적으로 신화의 언어를 좀더 추상적인 언어로 바꾼 것뿐이라는 것이 콘포드의 주장이다.<sup>15)</sup> 이런 콘포드의 생각은 합리직 사고와 철학의 출발점에 관해 접근하는 방식에 전환점을 만들었다. 밀레토스에서의 철학의 출현이 갑작스럽고 신형 요인이 없는 계시와 기적처럼 이야기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화와 철학 사이에 연속성을 보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신화와 철학 사이의 이런 연속성이 인지되고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은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었다. 철학에서 살아있는 신화적 요소가 어떤 것이냐를 넘어서 철학적 작업을 이전의 신화와 구분하는 새로운 요소는 무엇인가가 물음의 전면으로 등장했으며, 이 둘 사이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철학을 철학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의 대답이 추구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아울러

14) Vernant, 앞의 책 345쪽 이하 참조.

15) 반대되는 것들의 투쟁은 헤라클레이토스에서는 Polemos로 표현되고 엠페도클레스에서는 Neikos로 개념화되며 아낙시만드로스에서는 부정의 adikia로 표현된다. 반대되는 것들의 상호작용과 통일은 헤시오도스에서 Eros로 표현되는데 엠페도클레스에서는 Philia로 나타난다. 칸퍼드는 헤시오도스의 순환의 아이디어도 밀레토스 학파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매해가 그렇듯 우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며 본래의 통일과 화합을 찾는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은 시작으로서의 원리일 뿐 아니라 질서지위지고 구분된 세계의 중추점이기도 하다. arche로서 apeiron은 무한하며, 마르시 않는 영원한 원천으로 모든 것이 그곳에서 시작하고 그것으로 귀환하는 시간 공간상의 위환이다. 칸퍼드 앞의 책 참조.

변화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 폭과 한계 그리고 그것의 파장이 어떤 것인지가 함께 물음으로 던져졌다.

콘포드도 이 문제를 몰랐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철학이 한 일은 신화의 합리화라고 말한다.<sup>16)</sup> 그런데 합리화란 무엇인가? 그에 따르면 이는 먼저 문제의 명료한 제기라는 모습을 띤다. 신화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야기이다. 신화는 신이나 왕이 일련의 행위를 통해 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문제는 제기된 적이 없는 채로 이미 해소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 폴리스들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정치형태가 승리하면서 왕의 기억은 쇠퇴해 갔으며 아울러 명령의 산출자와 시간의 창조자는 사라져 갔다.<sup>17)</sup> 괴수와의 싸움에서 승리로 상징화되었던 통치자 왕의 신화적 위업과 우주적 현상의 구조 사이의 연결은 더 이상 명백하지 않게 되었다. 자연의 질서와 미, 비림, 폭우, 천둥과 같은 기후현상이 왕의 기능과 독립적인 것이 되면서 그것들은 더 이상 비로 그것들을 기술해 온 신화의 언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 갔다. 그것들은 이제 물음거리가 되었으며, 이 물음들은 공개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제기된 문제로서 초기 자연철학자들의 논의 주제를 형성했던 것은 바로 우주 질서의 발생이나 기후현상의 설명이라는 물음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철학자들이 기술적 왕들로부터 시간의 주재자 자리를 넘기반게 되었으며, 이전에 왕이 제공했던 동일한 현상을 설명할 이론을 만들어 내는 일을 떠맡게 되었다.

앞의 서술에서 베르낭은 신화적인 자연 서술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콘포드가 말하는 합리화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합리화란 콘포드가 말하는 것처럼 문제의 명료화다. 문제의 명료화란 우선 문제가 문제로서 분명한 형태로 제기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신화와 철학이 우선 분명히 구분된다. 신화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이다. 신이나 왕이 등장하고 바로 그가 등장하면서 문제는 해소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등장하는 신이나 왕과 함께 문제는 분명히 개념화되어 제기되기도 전에 이미 해소되는 것이다. 베르낭은 이런 문제해결의 방식은 왕이나 신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면서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16) 콘포드, 앞의 책, 187-8쪽 참조.

17) Homeros, *Odyssseia* 19, 109 참조.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이 희미하게 되는 현상은 새로운 정치형태의 등장과 함께 진행된다. 새로운 정치형태가 왕의 기억을 더 이상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왕이 사라진 곳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부상하는 것이 우주적 현상이다. 왕의 위업과 신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해결되던 자연현상이 더 이상 그 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게 되면서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게 되고 이 설명의 역할을 새로 맡고 나선 이들이 천학자들이라는 것이다. 사계신의 변화와 같은 세밀한 자연현상으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나 한발, 혹서와 혹한 등이 더 이상 신과 왕의 뛰어난 힘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리되기 시작한다. 합리화의 과정이란 일단 먼저 이같은 분화의 과정이다. 아울러 이런 분화와 함께 더욱 신명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는 더 이상 이전의 초인간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를 통해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다시 초능력 안에 미분화된 채 혼합되어 있던 요인들이 분화되어 개념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베르낭의 말을 들어보자.<sup>18)</sup>

헤시오도스에서 물리적 실재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힘이기도 했던 Gaia, Ouranos, Pontos들이 지녔던 개념적 애매성은 콘포드가 말하듯 밀레토스의 자연철학자들에게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 해도 개념적으로 훨씬 분명한 것이 되었다. 철학자들의 새로운 점은 이 신적인 힘들이 엄밀히 규정되고 추상적 개념들을 통해 개념화되었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더 이상 인격적인 힘으로 자신을 들어 내지 않으며, 그것들의 작용은 확정된 물리적 결과로 한정되고 그 결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흙이나 불을 밀레토스의 철학자들은 건조하거나 뜨거운 것으로 상징하고 관심을 붙여 추상명사화 했다. 뜨거운 것은 뜨겁게 한이라는 기능을 통해 규정되며, 이 실재를 규정하는데 신화적 인격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우주를 산출한 힘과 살아있게 하는 힘은 동일한 수준에서 완능하며, 미가 땅을 짓게 하고 불이 것은 옷을 말라듯이 우리의 일상 경험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기원이 되는 것은 그것의 신미적 힘을 벗어날리고 일상의 평범함을 갖게 된다. 이에서 밀레토스학과 사람들의 세계는 신으로 가

18) Vernant, 같은 책, 348쪽 이하 참조.

두한 것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자연적인 것이기도 하게 되었다.

최초의 자연철학자 그룹이었던 밀레토스 학파의 경우 자연의 신명에서 신적인 요인을 완전히 떨쳐 버린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한 변화가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베르낭의 지적이다. 개념적인 분명함으로 요약될 수 있을 이 변화는 좀더 구체적으로 1) 신적인 것들의 힘이 더욱 엄밀하게 규정되며 이 엄밀함은 추상적인 기술어를 통해 확보된다. 2) 그것들의 작용이 인격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확정된 물리적 결과로 이야기된다. 따라서 그것 성격이 일반적이게 되고, 동일한 경우에 공히 작용되는 성격의 것으로 작용이 추상화되어 기술된다. 다시 말해 고유명사로 표현되고 설명되던 자연현상이 이제는 보통명사, 추상명사를 통해 표현되고 그것에 따라 고유명사에 부속된 인격적 힘의 후광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사내에 대한 서술적 접근과 함께 이런 비인격화의 추세가 강화된다. 이런 추세는 다윈론자들 특히 원자론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다시 베르낭의 말을 들어 보자.

원자론자들의 이론과 더불어 신과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들이 **실정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과거와의 단절은 완전한 것이 되었다. 자연적이지 않은 것으로 어떤 것도 실재라고 생각되지 않았으며, 자연은 이제 그 신화적 배경에서 벗어나, 그 운행과 구조가 물음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이성적인 토론의 대상이 된다. 자연이라는 의미의 *physis*는 삶의 힘이고 움직임이며, 이 말의 동사형인 *phyein*에 ‘만들다’와 ‘생겨나게 하다’라는 두 의미가 함께 혼란되어 쓰이는 한, 기원과 탄생 그리고 생성의 설명은 성직 결합을 신화적 이미지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생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찾는 일이 되며, 족보를 찾아 올라가는 일이 된다. 그러나 이오니아의 철학자들에게는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된 자연의 원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결합되지는 않는다.<sup>19)</sup> 우주론은 따라서 서술언어의 민화 뿐 아니라 생각의 내용에서 비워게 된다. 계속 이어지는 출생의 계보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의 구성의

19) 콘포드, 앞의 책, 180-1 참조.

원리를 제시한다. 역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실재하는 것들의 심층구조를 드러 내는 시스템을 이야기한다. 생성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일은 이 생성 변화하는 것들을 넘어 그것의 배후에 놓여 있는 안정되고, 영속적이며, 동일한 것을 찾는 일로 바뀐다. 이와 더불어 ‘자연’이라는 개념은 신화로부터 받았던 요인들을 하나 하나 벗어 던지게 되고 비판적인 탐구와 검토의 대상이 된다. 우주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동물의 삶이나 식물의 생장에 기대기보다는 일상의 정교한 기술적 구조물들이 제공하는 모델들이 채택된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자연물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며 그것을 이해하는데 초자연적인 것을 상징할 필요가 없다. 기계의 운동은 물질의 영속적 구조에 의해 설명되며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생명적 힘과 같은 것에 기댄 필요가 없다.<sup>20)</sup> 사물을 생성시키는, 질적으로 상반되는 힘들 사이의 투쟁이라는 신화적 개념은 아낙시메네스에서 원소들의 기계적 구분작업으로 대체된다. 자연의 영역은 더욱 정확하게 한정되며, 이것이 일단 기계적인 것으로 개념화되면서 세계는 점차 신적인 요소들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운동의 기원이 무엇인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아낙시고라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적인 힘은 nous로서 자연의 외부에서 자연을 움직이고 조절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원자론자들의 이론과 더불어 신과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들이 **실정적인** 것으로 해석”되게 되었다는 말은 이것들이 ‘자연적’인 것을 통해 이해된다는 것을 뜻한다. ‘자연적’인 것을 통해 해석되고 이해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힘의 상징 없이 그것의 기원이 이해된다는 것을 말하며, 그 운행과 구조가 물음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이성적인 토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자연적이라는 말이 곧 초자연적인 것의 배제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이는 초자연적인 것이 구분된 이후의 일이며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과 미분화된 채로 자연 개념 내에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자연적이란 말이 초자연적인 것이 배제된 의미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그 운행

20) 기술의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합리적 사유를 의미하고 정신적 변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신화도 직조, 마퀴, 균형잡기 등의 기술적 모델을 사용하나 이는 어떤 종류의 활동이나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합리적 사유에서는 이것이 활동이나 기능의 표현을 넘어 그것의 구조와 작동기제의 설명을 시도한다. B. Snell, 앞의 책, 225쪽 참조.

과 구조가' 공공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그것에 관해 공유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성적 토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토론 당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기준 아래서 그 운행과 구조가 설명되는 것을 이른다.

베르낭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실정적'이란 말은 바로 공공적으로 접근 가능하여 이성적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적 토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의 참, 거짓 여부가 이성을 통해 비판적으로 테스트되고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 대상이 대체로 감각을 통해 접근 가능한 만큼 '실정적'이란 감각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세한 것이나 거대한 것들이 바로 감각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실정적인 것이 모두 감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이같은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구체적인 감각에 일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베르낭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것은 그같은 일회성을 넘어 반복되는 것이며, 이런 일회적인 것을 넘어서는 '안정되고, 영속적이며, 동일한 것'에 대한 확인작업이다. 생성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조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생성 변화에 일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회적인 것을 넘어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현상의 해석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기계적인 것들이 모델이 되는 것도 일회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신의 뜻으로부터 예측가능하고 따라서 설명 가능한 것들로의 이행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주와 자연의 운행이 실정성의 도대 위에서 설명된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공공적 접근 가능한 것으로 문제가 표현되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역시 공적인 토론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테스트되는 과정을 기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에 관해 이런 과정을 기친 언명이 지니는 타당성의 요구란 예측불가능한 초자연적 힘에서 비롯되는 공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되어 타당함이 입증된 것이 지니는 기억할 수 없는 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베르낭은 이어서 신화에서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것과 이오니아 학파나 피타고라스 학파 등에서 사용하는 추상적 개념이 모이는 것들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나 동일한 것일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sup>21)</sup>

이오니아 지방의 이런 지적 혁명의 시기에 뒤따라 이베리 남부지역에서는 어떤 점에서 이오니아의 그것과는 대치되는 지적 운동이 일어난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것은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데 세계의 단일성보다는 합일될 수 없는 이원성을 강조한다. 인간의 신체와는 다른 영혼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는데 신적인 존재가 우주를 이끌 듯이 영혼은 신체를 지배한다. 영혼은 공간적이지 않으며, 그것의 활동은 어떤 공간상의 물질적 운동을 진제하지 않는다. 신적인 힘과 연결되어 영혼은 일정한 조건 아래서는 신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신체와 결합된 상황을 벗어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보이는 자연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나 더 참되고, 비빈스럽고, 감추어진 실재가 있으며 이것은 철학자가 계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일견하기에 이것은 이오니아의 합리적 사고에서 퇴보한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신화적 사유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피타고라스의 사유는 이미 신화적 사유를 떠난 것이다. 자연에 관한 명시적 이원론은 자연에 관한 여러 레벨인 신, 자연,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게 했으며 이는 합리적 사유의 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신화에서는 이 영역들이 혼동되어 있으며 철학이 이 영역들을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상호 구별과 명료화 과정이 진행되고 개별 개념들의 섬세한 분절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연을 단순한 현상 수준으로 이끌어 내린 것은 자연세계의 생성이 신화의 생성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접근하고 독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자연을 넘어서 있는 신성한 존재를 탐구하려 했던 철학자들의 작업은 신화의 초자연적인 것과

21) Vernant 같은 책, 350쪽 이하.

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순수히 추상적인 어떤 것이었다.<sup>22)</sup> 종교에서 신의 이야기가 진리의 핵심을 들어 내는 것으로 그것의 진정한 지식과 실제의 모델이라면 합리적 사유에서는 그 반대다. 신화란 이 경우 진정한 지식이나 그 대상의 이미지일 뿐이며, 불멸의 영원한 존재가 제공하는 모델의 모방물일 뿐이다. 신화는 그래서 그럴듯한 믿음의 영역과 연결되며 과학적 지식의 확실함과 대비된다. 합리적 사유가 신화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재하는 것의 영역에서 모델과 이미지의 분명한 구분은 신화를 단순한 영상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일이 된다.<sup>23)</sup> 실제로 이테리 남단의 엘레아에서 활동했던 파르메니데스를 비롯한 엘레아 학파에서 변화하는 감각세계를 넘어서 있다고 실정되는 실제의 개념은 항상 자기 동일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감각세계의 끊임없는 변화와 불안정성에 대비되는 것이었다. 이 실체는 바로 합리적 사유 자체의 원리가 되고 삶의 성취 가능성의 토대가 되며 인간의 막이 만인에게 시간을 넘어서 접근가능한 것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에 비추어 신화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제반 세계이해는 더 이상 이미지 이상의 지위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만다. 이오니아 학파에서 **실정적인 것**의 요구가 출발에서부터 자연 개념에서 객체적인 것의 추구로 특징지어진다면 엘레아 학파의 파르메니데스에서 삶의 가능성에 정위한 존재의 개념은 자연을 넘어서는 새로운 수준에서의 절대적인 것의 실정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겠다. 고대 그리스에서 합리적 사유는 이오니아적 전통과 이테리적 전통 사이의 대립과 긴장을 지니며 진전한다. 이 두 방향의 대립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유의 전통 모두가 신화적 사유로부터의 결정적인 단절을 보이준다는 점은 부인될 필요가 없다. 이후 회랑철학사의 진진은 둘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 결과가 드러내는 그들은 이후 서양 철학사 전체의 진진을 결정하고 그 궤도를 놓는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베르낭의 지식의 논의를 따라 기술된 초기 회랑사상의 추이는 신화의 자연이해와 새로운 지적 운동으로서의 철학에서의 자연이해가

22) Platon, *Timaios* 29 이하 참조.

23) 위의 책, 같은 곳 참조.

이편 점에서 연속되고 이편 점에서 명확한 단절을 보이는지를 드러내 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초기 회람철학의 두 경향을 베르낭은 각기 실정적(positivist) 사유와 추상적(abstract) 사유라는 개념으로 묶어 주고 있다. 진자가 우리의 경험세계에서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추방하고 물리적 현상을 신적인 것과 연결하는 신화적 경향의 거부에서 특징지어 진다면 후자의 전통은 실재개념에서 그것에 신화가 부여했던 변화의 능력을 벗겨냄으로써 반대되는 것의 통일이라는 신화적 이미지를 배격하고 동일성의 원리라는 범주적 기술이 존재의 원리가 되도록 하는 사유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 그리스 사유의 추이를 실정적 사유와 추상적 사유의 생성과 발전으로 보는 베르낭의 이런 기술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편자도 이같은 분류의 건전함에 대해 크게 반대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글에 ‘고대 그리스에서 실정적 사유의 형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을 때 ‘실정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야기하려 한 것은 이렇게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제한된 의미보다는 좀더 확대된 의미에서였다. 베르낭이 ‘추상적’ 사유라 특징지었던 사유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실정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포괄될 수 있으며 이는 회람 사유를 넘어 서양 사상 전체를 특징짓는 기본 성격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같은 입장이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정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개략적 윤곽을 그리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사용하는 실정성이란 일단 타당성(validity)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계규정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다시 타당성이라는 개념의 식명이 필요할 것이다. 타당성이란 철학 분야의 경우 일단 논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논변에 대해 타당성 여부가 이야기되는데 추론의 결론이 전제로부터 정당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경우 이 논변이 타당하다고 이야기된다. 논리학에서의 이런 용법 이외에 타당성 개념 사용의 또 다른 예가 법의 경우에서 제시될 수 있다. 타당한 법(valid law)이란 구속력이 있는 법이라는 의미와 정당성이 주장될 수 있는

법이라는 의미를 모두 가진 수 있다. 영어로 valid law라고 할 때에는 실정법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구속력을 가지거나 혹은 구속력에 대한 요구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앞의 경우는 추론이 정해진 규칙을 따랐으며 그래서 옳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구속적이며 후자의 경우 현재 시행되는 법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물리적 강제력으로 집행된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타당성과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물론 논변이나 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사회의 관습도 사회구성원에 일정한 구속력을 지니며 그런 한에서 구속력 있는 규범이며, 실질적 규범이다. 언어공동체의 언어 규칙, 한 문화단위의 믿음체계, 한 가족 내에서 부모의 말 등 예측가능한 일정한 힘이나 영향력을 가지는 모든 것들이 가변적이기는 하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속력을 가지며 따라서 타당하거나 타당성에의 요구를 지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의 validity나 valid란 단어는 라틴어의 valere에서 파생된 단어로 valere는 힘을 가지다, 강력하다, 효력이 있다, 영향력 있다는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이에 해당하는 독일어의 gelten, Geltung 같은 개념의 경우 위에 이야기한 사항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물리적 힘이 아니라 나름의 타당성을 갖추었다는 압묵의 합의나 이해가 있을 때, Geltung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정성이 타당성의 한 형태라는 것은 실정성 역시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구속력이 특정한 방식으로 추구된 형태를 말한다. positivity 또는 같은 뿌리의 유럽어 개념들이 적용되어 온 분야는 크게 학문, 종교, 법의 영역이다. 학문 영역에서는 19세기 프랑스의 콩트가 실증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후로 이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20세기 들어 콩트와 약간 다른 방향에서 논리실증주의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법적 실정성의 개념은 서양문화의 또 다른 뿌리인 기독교 사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형성된 것이다. 19세기 이후의 실정성 개념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이 두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나 두 영역에서 실정성 개념 사이의 내적 연관에 관한 논의는 거

의 없는 원이다. 이는 실정성 개념이 서양 문화의 핵심적 측면을 드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념 내용의 학문적, 철학적 내용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논문의 기본 입장은 베르낭이 추상적 사유라고 명명했던 측면까지가 서양적 실정성 개념의 핵을 이룬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법직 영역에서의 실정성 논의를 포괄하는 실정성 개념은 위에 이야기한 *valere* 개념의 토대 위에서 의미있게 구성 가능하다. 이런 포괄적 의미에서의 실정성 개념은 특정 진술과 관련하여 그 결과에 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형태의 구속력과 반드시 어떠 어떠하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원인적 타당성을 추구해 온 서양문화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글에 이어지는 일련의 글들은 이런 맥락에서 씌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